순천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

고지서 분실해도 바로 확인 · 언제든 납부 가능

디지털 뉴딜정책 선도한 편리한 납세 서비스

순천시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가 2020년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혁신정책장터 데모데이’ 행사에서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변화를 선도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순천시의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과세내역을 전달하고 납세자가 알림톡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해도 부과내역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인 혁신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납세편의 서비스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순천시가 선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시의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이용자가 1만3천여명, 납부액 16억원으로 편리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가 최근 여수 장도 다목적 전시홀에서 웅천 장도를 예술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GS칼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시, 전남도 · GS칼텍스와 장도 ‘예술의 숲’ 조성 업무협약

2023년까지 9만2865㎡

여수시가 웅천 장도 예술의 숲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GS칼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여수 웅천 장도 다목적 전시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GS칼텍스 김기태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도를 남도의 섬과 숲,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것.

장도 예술의 숲은 ‘예술로 치유되는 섬’을 컨셉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26억 원 포함 총 52억 원을 들여 9만2,865㎡에 예술광장, 긴 섬 오션뷰, 샘터정원 숲 등이 조성된다.

청정 숲과 예술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방문객들이 휴식과 치유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바다 · 하늘 · 섬 · 숲 등 청정 블루자원을 활용, 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숲 조성을 위해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 후에는 기념식수와 현장시찰도 이어졌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도의 지리적인 특색을 잘 살려 아름다운 예술의 숲이 조성되면 남해안권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광양 눈소공원, 녹색 쉼터 새 단장

14종 6640주 수목 식재 · 산책로 정비 · 편의시설 설치

광양시는 중마동 1212번지 일원 눈소공원에 수목 식재, 편의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를 통해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새 단장했다.

시는 총 4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공원(1.6ha) 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홍가시, 편백나무 등 14종의 6,640주 수목을 식재했다.

또한,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신규 산책로(L=167.0m)를 확장했으며, 이용객이 편히 쉴 수 있는 벤치 20개와 운동기구 4종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8월 개관을 앞둔 중마종합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공사와 연계해 복지관에서 진 · 출입이 가능하도록 산책로, 데크산책로 등을 설치해 시민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생활 힐링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은 “도심 속에 숲 조성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들이 걷고 싶은 시원한 숲,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건강한 숲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고흥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짚트랙)’ 개장

1.53km 단일 세계 해상최장…새로운 관광 체험거리

고흥군 영남면 남열우주발사전망대 일원에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일명 짚트랙)’이 완공되어 최근 개장에 들어갔다.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지난 6월에 준공되어 민간 위탁운영자 공모를 통해 ㈜짚트랙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최근까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완벽하게 시험운행을 마무리하였으며, 하계 휴가시즌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별도 개장식 없이 운영하게 되었다.

남열 공중하강체험 시설은 단일 세계 해상 최장거리(1.53km)의 시설로 활강4라인에 기존시설과 달리 일반형 외에도 체어형, 슈퍼맨형 등 다양한 하강유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최대 활강속도 70~80km/h로 고속 활강 스릴과 저속 구간에서는 수려한 해안 경관을 여유롭게 감상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3만원으로(군민은 1만5천원), 지역상품권 5천원을 환급하여 고흥의 먹거리, 살거리 등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과 여수를 잇는 팔영대교 등 연륙-연도교의 개통에 발맞추어 체험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짚트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활강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주발사전망대,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미르마루길 명품탐방로 등 고흥의 빼어난 주변 관광자원과도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고흥관광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김영록 전남지사

경전선 고속 전철 사업 벌교역 정차 공동 대응

김철우 보성군수는 17일 보성군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보성군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군수는 “벌교는 전남 동부권 교통 중심지”라면서 “고속 열차가 벌교역에 정차할 경우 인근 철도 소외지인 고흥과 낙안, 송광 지역까지 포용할 수 있어, 동부권 교통편익이 증대되고 형평성과 효과성 면에서도 타당성을 갖게 된다.”라며 벌교역 정차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4월 경전선 광주송정~보성~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목포에서 부산 부전까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장장 6시간 33분을 달리는 ‘느림보 열차 한나절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보성군에서 현안 사업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는 벌교~장도 간 뻘배꼬막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보성=김덕순 기자